

전남 여수에 위치한 한국남동발전 여수화력발전처는 여수 국가산업단지에 전력을 공급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다. 1975년부터 중유발전을 해오다 오일쇼크 등을 겪으면서 가동을 중단하는 등 크고 작은 부침을 겪었던 역사를 뒤로 하고 석탄발전으로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현재 여수화력 2호기의 보일러 설비는 운용중이고, 1호기 설비의 교체작업은 진행 중에 있다. 이 때문에 2호기 상업운전에 따른 운영부서의 안전조직과 1호기 건설에 필요한 안전조직도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1호기의 안전은 여수화력발전처 건설관리팀의 안전관리자와 협력업체의 안전관리자가 협의 하에 공동으로 운영되는 등 조직별 전문인력이 유기적으로 협업하고 있다. 40여 년 역사를 바탕으로 새 역사를 쓰고 있는 여수화력발전처의 안전관리 노하우는 무엇인지 직접 찾아가 봤다.

## 신뢰에 기반한 안전협력 체계 구축

# 한국남동발전 여수화력발전처

취재 박병탁 기자 ppt@safety.or.kr

## 신뢰로 쌓아가는 사업장 안전

여수화력발전처의 안전관리는 수평식 의사전달과정을 구현하고 있다. 형태적으로는 여수화력발전처장으로부터 안전관리자까지 수직으로 이어진 구조이지만 실질적인 의사결정은 상하의 구분이 없다고 보는 편이 맞다. 실무를 맡고 있는 안전관리자의 판단을 여수화력발전처 경영진이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협력사인 포스코건설은 안전관리 담당이 별도로 조직·운영되고 있어 전문성이 가미된 안전관리가 신뢰감을 더한다.

여수화력발전처에는 공사관리팀의 박종학 과장과 포스코건설의 최락희 안전그룹 매니저가 공동으로 여수화력 1호기 설비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맡아 하고 있다. 박종학 과장은 최락희 매니저에 대한 신뢰를 가감 없이 드러냈다.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작업은 진행조차 할 수 없다고 말한다. 실제로 최락희 매니저의 결정에 따라 공사 진행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었다. 박종학 과장은 “최락희 매니저의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서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작업진행은 절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최락희 매니저는 “일부 작업관계자들의 불만이 있지만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공사 진행을 할 수 없다”면서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는 것은 박종학 과장이 우리의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안전관리부문에서 경영진과 안전관리자 간의 신뢰, 원청과 협력사 간의 신뢰가 여수화력발전처의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드는 원동력이다.

### 기본에 충실한 현장관리

여수화력발전처 건설현장은 기본적인 안전활동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에서부터 안전한 현장이 만들어진다고 믿고 있다. 이 때문에 여타현장에서 소홀히 할 수 있는 안전점검도 비교적 꼼꼼히 이뤄지고 있는 편이다.

실제로 매일 아침 근로자들의 건강상태, 컨디션을 확인하는 작업을 통해 작업자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특히 이때 실시되는 음주측정, 균형감각 테스트 등에 통과하지 못한 작업자들은 그날 작업에서 열외되거나 작업현장에 투입이 불허된다.

이들이 기본적인 안전관리를 강조하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복잡한 공정 탓이기도 하다. 발전소 건설공사는 철탑이나 도로를 까는 등 비교적 단순한 공정이 이뤄지는 현장과 달리 공정이 복잡한 종합플랜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복잡한 공정 탓에 여러 가지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안전관리도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안전활동부터 충실히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곳 안전관계자의 생각이다.

이 때문에 여수화력발전처에는 고소작업, 용접작업 등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대비는 충분히 마련해 놓은 상태다. 추락 및 낙하 등 위험요소에 대비하기 위해 추락 방지망을 주요 부위에 설치했고, 고소작업을 하는 전 근로자에게는 이중 줄걸이를 사용해 안전한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또 볼트 같은 부재들의 낙하 방지를 위한 볼트 수거함 등





이 배치돼 있고, 현장 순시를 강화하기 위해 책임구역제, 즉시개선제도 등을 시행해 시스템적으로도 관리를 하고 있다. 여수화력발전처 안전관계자는 한결같이 이렇게 말한다.

‘기본을 무시한 특별한 안전활동은 있을 수 없다’

### 현장을 향해 있는 통합안전센터

이곳 안전관리의 백미는 꼼꼼한 안전 확인이다. 매일 아침 실시되는 근로자 건강상태 확인을 시작으로 매일 소단위 안전회의인 TBM(Tool Box Meeting)활동, 공정별 작업사항 안전회의가 수시로 진행된다. 또 작업이 시작되면 본사와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안전감시단이 정기·수시로 현장을 확인한다.

이 모든 활동이 이뤄지는 곳은 건설현장 근거리에 위치한 통합안전센터다. 공사현장을 직접 마주하고 있는 이 사무실은 널찍한 통유리를 통해 창밖 공사 현장을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실시간 관리·감독 지휘소인 셈이다.

여수 화력발전처에는 안전관리자가 매일 두 차례 정기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있고, 부정기적 현장 점검도 수시로 진행된다. 여기에 안전감시원의 정기 순시도 매일 진행될 뿐만 아니라, 처·실장실을 비롯해 통합안전센터에 설치된 모니터에는 건설현장 곳곳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서 촬영된 현장 모습이 고스란히 전송된다.

사실상 2-3층의 물 샬 틈 없는 안전관리·감독이 진행되는 셈이다. 40년 역사의 여수화력발전처가 크고 작은 위기를 이겨내고, 새로운 도약을 시도할 수 있는 것은 이 같은 철저한 안전관리,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안전관리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앞으로 여수화력발전처가 만들어갈 새 역사를 기대해 본다. ☺

#### 미니인터뷰



박종학 과장

### 안전은 서로를 신뢰하는 것

여수화력은 건설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무사고를 제1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 직원의 합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여러 제도들이 유기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안전관리에 대한 시스템적인 통합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단지 저희 여수화력발전처 뿐만 아니라 준공 후에는 한국남동발전 등 발전업계에 전사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의 유기적 통합, 표준화를 이루는 데 노력하겠습니다.